

산업연, 한국경제 올해 플러스 성장...낙관 배경 '재정정책'

올해 성장률 전년 대비 0.1%로 '플러스' 성장 예측 1~3차 추경 등 정부 재정투입 효과 '최대기여' 분석

올해 한국 경제가 전년 대비 0.1% 성장할 것이라는 산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역 성장을 예측하는 등 전망치를 크게 낮춘 것에 비하면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연구원은 22일 '2020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코로나19 사태의 여파 속에 수출 감소세 지속과 소비 감소 전환, 투자수요의 제한적 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1%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1월에 내뱉던 종전 전망치(2.3%)와 비교하면 2.2%포인트(P) 하향 조정된 수치이다. 종전보다 크게 낮춘 전망이긴 하지만 국내외의 주요 기관들과 달리 성장률 전망은 '플러스'를 유지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차단하는 데 성공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Single-hit)에선 1.2% 감소를, 방역에 실패해 10~11월 코로나19가 다시 번지는 시나리오(Double-hit)에선 2.5%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한

국은행도 올해 0.2% 감소를 예측하며 역 성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타 기관들의 부정적인 전망에도 산업연구원이 비교적 낙관적으로 추산한 데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와 반도체·조선 등 일부 주력 산업의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쏟아부은 재정 규모는 지금까지 약 270조 원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1914조원의 14.2%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35조3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소비와 투자 위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9.1% 감소, 민간소비는 1.9% 감

소할 것으로 전망한 점에 비춰보면 재정정책을 통한 플러스 성장률에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2차 추경(23조9000억원)으로 올해 성장률을 0.5%포인트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했다. 3차 추경이 집행된다면 1·2차 추경보다 높은 규모를 감안하면 성장률 상승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 2.0% 달성에도 정부 기여도는 민간 기여도(0.6%포인트)의 3배 수준인 1.5%포인트 차지했다고 분석된 바 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정부에서 투입한 재정은 대부분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져 높은 기여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적절히 잘 한다면 우리 산업·경제가 한단계 업그

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효과 외에 반도체, 조선 등 일부 주력산업의 선진도 성장률 상승에 일조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고, 조선 역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발주된 초대형컨테이너선 등 여러 선박이 본격 인도되면서 내수가 7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추산했다.

다만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 조짐이 일어나면서 수출 등 한국 경제는 다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발목이 잡힐 수 있어 코로나19 사태 추이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광주·전남에 차세대 전력기자재 지능화 지원센터

혁신도시 경제 키울 우수사업 6건...총 3억원 지원 국토부, 혁신도시 가속화를 위한 기획비 지원 사업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중 6개 지역이 우수사업에 선정돼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사업 기획비 총 3억원을 지원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혁신도시 지역경제 거점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우수사업 6건을 최종 선정했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 총 3억원의 기획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혁신도시별 특화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원도심 상생발전을 위한 맞춤형 발전과제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종합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매년 혁신도시별 우수사업 중 정부 공모사업에 지원 예정인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획비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선정된 6개 사업은 △차세대 전력기자재 지능화 지원센터 구축(광주·전남) △디지탈 그리드 핵심기기 개발 및 실증 사업(광주·전남) △바이오소재 개발 기반 조성 사업(경북) △스마트시티 에너지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지원체계 구축(충북) △제주혁신도시 스마트센터 건립 사업(제주) △혁신도시연계 완주시설 구축 혁신파크(사회경제허브) 조성사업(전북) 등이다.

이대섭 국토부 혁신도시정책과장은 "지역경제 거점화를 통해 혁신도시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기획비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인천공항공사 · 한국전력 順

선호 이유 "고용 안정성→高연봉·관심업종"으로 변화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한국전력공사가 이름을 올렸다.

2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전국 대학생 1045명을 대상으로 2020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에 대해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으로 인천공항공사(18.4%)를 꼽았다. 지난 2018년부터 동 일조사에서 1위를 지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를 고른 이유를 살펴보니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24.1%)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여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22.8%)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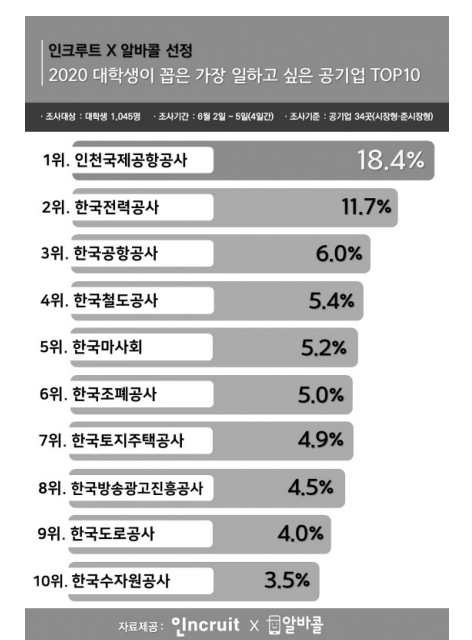
2위는 지난해 1위를 차지한 한전(11.7%)이 이름을 올렸다. 한전은 남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12.4%) 1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공항공사(6.0%)와 한국철도공사(5.4%)가 그 뒤를 바짝 쫓으며 3, 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순위권 밖이었던 한국마사회(5.2%)는 5위로 새롭게 떠올랐다. 마사회는 직원연봉 평균기준 8900만원(2019년 기준)선으로 조사돼 공기업 연봉킹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어 한국조폐공사(5.0%)와 국토교통공사(4.9%)가 6, 7위로 순위싸움이 치열했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4.5%)가 8위로 차드인했다. 한국도로공사(4.0%)와 한국수자원공사(3.5%)가 9,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인크루트가 올해 선호 공기업 1곳과 해당 기업을 고른 이유를 단일 선택하



해외 구매대행 제품 절반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국가표준원, 48개 제품 조사 23개 부적합 "판매중지 통보"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어린이 카시트 등 인기 있는 해외 구매대행 제품 절반 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인기 해외 제품 중 사고 신고가 빈번한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차량용 어린이 카시트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을 대상으로 4~6월간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의 내구성, 최고속도, 유해 화학물질 등 국내 안전기준에 맞는지 살펴본 결과 조사 대상의 절반 수준인 총 23개(48%)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품별로 물놀이 튜브는 조사 대상 5개(모델명: 투명반짝이원형튜브, 해막튜브, 하트튜브, JBROCHINA, 아보카도튜브) 제품 모두 기준 미달이었다.

국내 기준에서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 0.3mm 이상(길이 76cm 이하는 0.25mm), 튜브 내에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5개 제품 모두 두께 기준에 20~40% 미달하고, 그 중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자칫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된다.

전동 킥보드도 조사 대상 5개(모델명: 울로릭 GQBD-10A, MAX800, X5S, nanobot THE NEW D4+, 샤오미 미지 아 프로 전동킥보드) 제품 모두 문제가 있었고 전기자전거는 조사 대상 5개 중 3개(모델명: G650 블랙/레드, Kalosse 전기 팟바이크 일반형 블랙엠티(B01), 전기 팟바이크 TOP-012N)가 부적합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전도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법상 최고 속도를 25km/h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

나 최고속도가 최대 44km/h에 이르는 제품(울로릭 GQBD-10A)이 확인되는 등 10개 제품 중 8개가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했으며, 그 중 2개는 감전 위험,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이 함께 확인됐다.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인 카시트는 조사대상 5개 중 3개(모델명: Advocate Clicktight, MICO 30, Child Car Seat)가 기준에 부적합했다. 그 중 1개(Child Car Seat) 제품은 내충격성 미흡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6배 초과도 함께 확인됐고, 다른 2개 제품은 국내에서 부차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클립'이 안전 벨트에 부착돼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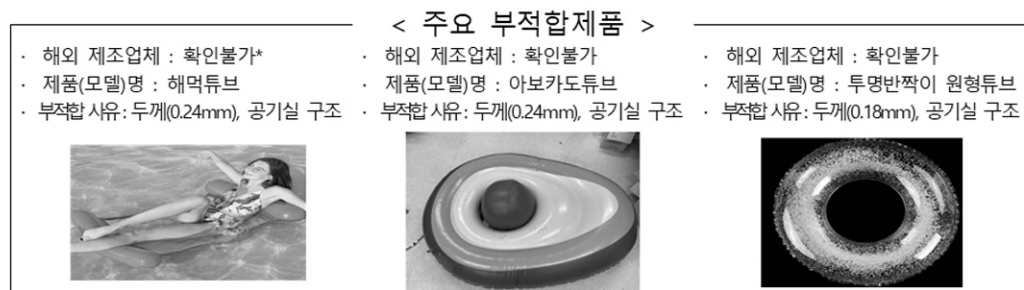
이외에도 표면온도 기준치(50도)를 초

과한 전기방식 3개(극세사 온열 전기방식 등반이 메모리폼 쿠션 방석 2단, JRL.T001, D-150), 부력기준 미달의 구명복 2개(슈프림 오브라이언, 성인용 물놀이 바다 낚시 수영 웨이크 베스트 라이프 자켓 구명조끼), 주황 내구성미 부족한 유모차 1개(506) 제품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해당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라며 "세부 조사내용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바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날 발표한 인기 구매대행 제품 안전성조사와 별도로 2020년 안전성조사 연간계획에 따라 냉방용품, 여름철 의류,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을 중심으로 전기 3차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는 이달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부적합제품



주요 부적합제품



주요 부적합제품



렌터카에 결함·리콜 있으면 영업 못한다

국토부, 이달 중 입법예고

앞으로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으면 신규 대여를 할 수 없게 된다.

리콜 대상 렌터카가 이미 대여 중이라면, 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체 등으로부터 리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함 사실을 우편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 등으로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지난 4월 7일 개정된 10월 8일부터 시행을 앞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춰 세부 내용을 담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다.

그동안 렌터카는 리콜이 생기면 차량이 리콜을 받는 동안 사업자의 영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미루는 경우가 많

았다.

이 때문에 장기 렌터카의 경우 제때 수리를 받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결함을 야기하는 등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러나 렌터카 사업자가 리콜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마땅한 규제 방법은 없었다.

특히 시행규칙은 렌터카 사업자가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결함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과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렌터카 사업자의 통지 및 리콜 조치 의무를 명시해 미실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사용자의 위험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렌터카가 리콜을 받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 7~8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중으로 공포, 최종적으로 10월 8일 시행될 예정이다.